

## 조기 해외 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권 미 경<sup>1)</sup>

숭의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이 순 형<sup>2)</sup>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생을 해외에서 학업을 선택한 아동기와 청소년기 학생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 안에서 적응해야 하는 타 문화인으로서 규정하였다. 조기유학생이 학생으로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타 문화 인으로 경험하는 문화이입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그들의 부정적 정서와 유학만족감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문화적응 이론에 기초하여 확인하고,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차이를 규명하였다.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초, 중, 고 조기유학생 618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조기유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 자체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그들의 심리적 적응과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조기유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 수준에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부적 영향력과 발인동기 변인의 정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셋째, 조기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과 유학만족감이 그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초등학생의 집단에서는 유학국가 변인이 사춘기를 지난 중고생의 경우에 성별이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초등학생에게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중고생에게는 문화이입 스트레스가 그들의 적응을 설명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주요어 : 조기유학, 문화적응, 일상적 스트레스, 문화이입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유학만족감, 학교적응

\* 이 논문은 2009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박사학위논문을 재분석한 것입니다.

학위논문에 사용한 2007년 자료가 분석되었습니다.

1) 교신저자 : 숭의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E-mail : mkkwon@sewc.ac.kr)

2) 공동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I. 서론

한 인간이 태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학습하여 그 방식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며, 이는 개인 차원에서는 적응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세계화라는 국제환경 변화로 이민, 난민, 해외 취업, 유학, 해외여행 등 문화접촉 기회가 증가함(Sam & Berry, 2006; Ward, Bochner & Furnham, 2001)에 따라, 자신이 성장해 온 사회와 문화를 떠나 타문화로 진입,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재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가 다른 두 사회 집단이 장시간에 걸쳐 접촉이 진행될 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성원들의 문화에 변화가 나타나는 문화적응(acculturation)현상이 발생하게 된다(Redfield, Linton & Herkovits, 1936).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문화접촉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와 개인의 변화와 적응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과 연구 모형(Berry, 1997; Bochner, 1986; Gudykunst & Hammer, 1988; Sam & Oppedal, 2002; Tajfel & Turner, 1986; Ward, Bochner & Furnham, 2001)을 제시함으로써 그 과정을 설명하려 했다. 문화적응에 대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문화접촉을 스트레스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적 자원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스트레스대처 이론, 문화적응과정에 나타나는 사회적 기술과 대인 관계, 행동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학습과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화학습이론,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심을 두고 개인

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려는 전략들을 통해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사회정체성 이론, 문화적응에서 개인 차원의 수준에 초점을 두고 적응의 정서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 인지적(Cognitive)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화적응 ABC 이론(Ward et al., 2001), 문화적응에 발달적 적소(Super & Harkness, 1986, 1994)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문화능력 발달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는 문화적응 발달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조기유학은 ‘초·중등단계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행위(한국교육개발원, 2001)’로 정의되며 국경을 초월하여 학업의 기회를 선택하는 것(한준상·기영화·강양원·박현숙·샤론 메리엄, 2002)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조기유학도 세계화 추세 속에 나타난 문화접촉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조기유학생은 문화접촉에 따른 적응이 요구되는 문화적응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다.

새로운 문화에 진입한 개인들은 문화접촉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Sam & Berry, 1995; Ward, Bochner & Furnham, 2001). 조기유학도 유학국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재적응의 노력이 요구되는 스트레스 상황임이 분명하므로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기유학생들이 지니는 문화집단으로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여 스트레스 분석을 중심으로 적응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려한다. 연구에 반영하여야 할 조기유학생이 지니는

독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첫째, 조기유학생은 대학생이나 성인이 아닌 아동기와 청소년기 초·중·고등학생이다. Sam과 Oppedal(2002)은 문화접촉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적응과정의 변화가 모두 문화적응으로 설명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는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조망함에 조기유학생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제까지 조기유학생의 적응연구들이 각각 초등학생(방주아, 2008)이나, 중고생(권미경·이순형, 2007; 조유수, 2009)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동일 기준의 비교연구가 없는 상황이므로 아동기인 초등학생과 청소년기인 중고생의 적응을 같은 기준에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기유학생은 학업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문화집단이다. Berry와 Sam(1997)이 제시한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조기유학생의 문화집단으로의 특성을 정의 내려보면, 조기유학생은 교육기회를 찾아 자발적으로 유학국가라는 타문화 안으로 이동한, 일시체류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조기유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이주된 난민이나 영구적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와는 구별되는 집단임을 뜻한다. 일시적 체류상태인 조기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원 문화와 새 문화에 대한 태도가 이민 청소년들에 비해 갈등적이지 않고 대부분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교육인적자원부, 2007)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에서 고려하는 두 문화에 대한 태도, 가치관, 민족정체성, 또 문화선호를 기초로 한 문화적응 전략보다는 조기유학생들의 적응은 더 기저에 작용하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과 같은 심리특성

을 고려함이 적절하다.

셋째, 조기유학생의 역할에 기초하여 설정된 지위가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유학생은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이면서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문화 안에서 자신의 고유문화를 대표하는 타 문화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지닌다(Furnham & Bochner, 1986). 이 역할기준에 근거해 볼 때, 조기유학생들은 유학국에서 학생으로서의 지위와 타문화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지닌다. 이는 조기유학생들의 적응도 두 가지 지위에 따르는 역할에 적응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서로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먼저, 조기유학생은 개인의 목표를 이루고 성장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성숙과 발달의 변화를 경험하며 발달적 과업들을 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학업, 친구관계, 키나 몸무게, 생김새 같은 외모와 관련된 부분, 경제적 갈등 같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조기유학생들은 새로운 문화 안에서 타문화인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학국가라는 낯선 문화 환경 안에서 차별감(Chataway & Berry, 1989)이나 문화적 이질감, 향수병(Lu, 1990; Sam & Eide, 1991), 변화로 인한 두려움(Sandhu & Asrabadi, 1994)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스트레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응 연구(나임순, 2006; 문용철, 2007; 이승중, 1995; 장혁심, 2007; Berry & Annis, 1974; Berry, Kim, Minde, & Mok, 1987; Dona & Berry, 1994; Natasha, 2005)들은 주로 문화이입 스트레스에만 초점을 두어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의 적응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학생이면서 동시에 타문화인이라는 특성을 가진 조기유학생의 경우,

학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학국가로 이주한 타 문화인으로 경험하는 문화이입 스트레스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또한 조기유학생의 적응과정에서 유학 상황 관련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조기유학이라 부르지만 사실 조기유학생이 직면하는 개별 상황은 매우 다양하여 그 상황을 이루는 변인에 따라 적응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조기유학 관련 선행 연구들(권미경·이순형, 2007; 김영희·최명선·이지향, 2006; 박정희, 2006; 안병철, 1996; 왕성성, 2006; 이해경, 2005; 조유수, 2009)은 조기유학생의 적응에 유학동기(발인동기, 유인동기), 가족동반 여부, 유학준비 정도, 유학 전 외국 경험, 외국어 능숙 정도, 유학 대상국가, 유학을 위한 체류기간 등이 관련됨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 변인들이 초·중·고등학생의 유학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그들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적응의

과정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 및 적응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정하려 한다. 특히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연령범위는 발달과 성숙에 따른 변화가 급격한 시기로 이는 그들의 적응에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생을 초등학생 집단과 중고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발달적 차이가 조기유학생의 적응에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기유학생의 학생이면서 타 문화인이라는 지위를 반영하여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를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설명할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주요 변인의 관계를 구체화하고자 구성한 이론적 가설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첫째, 조기유학생 적응의 대표적 개념으로 부정적정서, 유학만족감, 학교적응 등이 설정되었다. 둘째,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과 문화이입 스트레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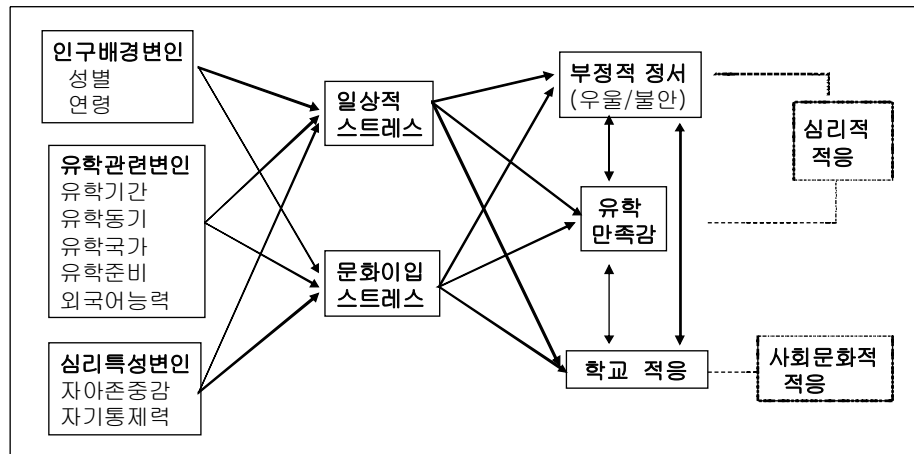


그림 1.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이론적 가설모형

으로 구분하여 설명변인으로 설정되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인구배경 변인(성별, 연령), 유학관련변인(유학기간, 유학동기, 유학국가, 유학준비, 외국어 능력), 심리 특성 변인(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들이 조기유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변인들로 설정되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학생으로서 조기유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이론적 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기유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일상적 스트레스,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떠한가?

1-1. 조기유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떠한가?

1-2. 조기유학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적응 정도(부정적정서, 유학만족감, 학교적응)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1.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3-2.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조기유학생의 적응(부정적 정서, 유학만족감,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4-1.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4-2.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유학만족감을 설명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4-3.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

조기유학 중인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초·중·고 유학생 출국통계(교육인적자원부, 2006)에 근거하여 조기유학생이 가장 많이 출국해 있는 순서대로 미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중국, 동남아(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국가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국가별로 초등학생과 중고생으로 구분 표집 하였고 조사는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자기 응답형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여름방학 기간 중 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들의 경우는 조사

표 1. 연구대상의 구성

단위: 명(%)

| 변인   | 내 용     | 초등학생      | 중고생       | 계(%)      |
|------|---------|-----------|-----------|-----------|
| 성별   | 남       | 117       | 200       | 317(51.3) |
|      | 여       | 116       | 185       | 301(48.7) |
| 유학국가 | 미국      | 38        | 81        | 119(19.3) |
|      | 캐나다     | 41        | 71        | 112(18.1) |
|      | 뉴질랜드/호주 | 54        | 79        | 133(21.5) |
|      | 중국      | 54        | 68        | 122(19.7) |
|      | 동남아     | 46        | 96        | 132(21.4) |
| 계    |         | 233(37.7) | 385(62.3) | 618(100)  |

원이 서울, 분당, 일산 소재의 어학원을 방문 조사하였고, 그와 동시에 유학국 현지에서도 조사원들이 교회와 학교에서 유학국에 체류 중인 학생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초등학생 233부, 중학생 175부, 고등학생 210부로, 총 618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구성은 표 1과 같다.

조기유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파악을 위해 부모의 학력과 직업, 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정경제 수준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는 91.7%(567명), 어머니의 경우는 82.8%(519명)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대졸 이상의 인구가 남자 37.8%, 여자 25.4%(한국통계청, 2005)라는 비율보다 월등히 상회한다. 또한 부모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관리직 178명(28.8%), 사무직 167명(27.0%), 전문직 91명(14.7%), 자영업 77명(12.5%)으로 전체의 약 8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어머니들 중에는 전업주부가 가장 많아 349명(56.4%)이었고, 전무직이나 사

무·관리직을 가진 경우도 전체의 약 25%에 달했다. 가정의 경제 수준에 대해서는 92.9%인 574명의 학생이 보통 이상이라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 조기유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평균 이상임을 보여준다.

## 2. 연구도구

### 조기유학 특성 척도

조기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유학동기, 유학준비정도, 외국어능력과 유학기간을 기준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유학동기 척도는 선행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6)와 심층면접 자료를 기초로 조기유학에 대한 유인동기와 발인동기 척도(교육인적 자원부, 2007)를 구성 사용하였다. 유학대상국의 장점이 표현된 유인동기로 ‘현지어(영어 또는 중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등의 항목 6가지와 한국교육에의 불만족과 부적응이 주로 표현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싫어서’, ‘과외공부 비용이 많이 들어서’등의 발인동기 항목 6가지가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두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73이다. 유학준비는 ‘현지어공부’, ‘유학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공부’, ‘유학국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준비’, ‘일상생활 기술 준비’에 대해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alpha$  값은 .86이다. 외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독해, 쓰기/작문에 대해 5점 척도의 자기응답형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s  $\alpha$  값은 .92이다. 유학 기간은 ‘유학 온 지 ( )개월 되었다.’로 질문하여 개월을 단위로 삼았다.

####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척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IV’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 Self- Esteem Scale (RSES) 도구 중 6개 문항을 발췌하였다. 자기통제력은 Grasmick (1993)의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81와 .75이다.

####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IV’ 연구(2006)에 쓰인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으로 구분된 총 17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일상적 스트레스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77이다.

#### 문화이입 스트레스 척도

조기유학생들이 타문화인으로 경험하는 문

화이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andhu와 Asrabadi(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199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비하감’, ‘두려움’, ‘변화와 문화충격’, ‘죄책감’ 및 ‘기타’로 구분된 총 36문항의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Sandhu와 Asrabadi의 척도개발연구(1994)에서 문항적합성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하고, 아동학박사 3인의 내용 타당도에 대한 자문을 얻어 한국 조기유학생에게 적합한 것을 중심으로 각 하위영역별로 2문항씩 선정하여, 총 14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83이다.

#### 불안·우울 척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IV’에 쓰인 불안과 우울 척도 5문항 5점 척도를 사용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82이다.

#### 유학만족감 척도

유학만족감은 학생 자신이 현재의 유학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 정도를 ‘유학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나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두 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 학교적응 척도

조기유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적응을 학업성적, 학교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학업성적은 ‘매우 못함(하위 20% 이내)’ 1점부터 ‘매우 잘함(상위 20%이내)’ 5점까지 자기응답으로 평가하였다. 학교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는 ‘한국청

소년패널조사Ⅳ에 쓰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각각 3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교친구관계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75 이며, 교사와의 관계의 경우는  $\alpha$  값이 .67 이다.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5문항의 5점 척도(류광식, 2002)를 사용하여, 조기유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를 살폈고, 이의 Cronbach's  $\alpha$  값은 .88이다. 학교적응에 대한 평가는 위에 기술한 척도를 통해 파악된 학업 성적, 학교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들의 평균 합을 구하여 산출하였다.

### 3. 자료의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조기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관련요인들과 그 상대적 영향력의 파

악을 위해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 분석방법(stepwise selec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 모형<sup>1)</sup>을 검증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조기유학생이 보이는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 조기유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경향

조기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전체 평균 2.35점(SD=.66)으로 중앙값보다 낮아 보통 수준보다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표 1.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

(N=618)

| 구분 |       | 부모관련      | 학업관련      | 친구관련      | 외모관련       | 소유관련      | 전체        |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 학년 | 초등 학생 | 2.51(.93) | 2.52(.92) | 1.83(.83) | 2.04(1.01) | 1.94(.94) | 2.17(.70) |
|    | 중고생   | 2.73(.95) | 3.07(.84) | 1.83(.78) | 2.34(1.02) | 2.15(.88) | 2.42(.62) |
| 전체 |       | 2.66(.95) | 2.89(.91) | 1.83(.79) | 2.23(1.02) | 2.08(.90) | 2.35(.66) |

1) 2단계 최소자승법(2 stage least squares method: 2SLS)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추정 모형의 함수식이다.

$$A_1 = H_1(A_2, A_3; B_{11} B_{12}), A_2 = H_2(A_1, A_3; B_{11} B_{12}), A_3 = H_3(A_1, A_2; B_{11} B_{12})$$

Instrument:  $B_1, B_2, B_3, B_4, B_5, B_6, B_7, B_8, B_9, B_{10}, B_{11}, B_{12}$

내생변수:  $A_1$ (부정적 정서),  $A_2$ (유학만족감),  $A_3$ (학교적응)

외생변수:  $B_1$ (성별),  $B_2$ (연령),  $B_3$ (유학기간),  $B_4$ (유인동기),  $B_5$ (발인동기),  $B_6$ (유학국가),  $B_7$ (외국어능력),  $B_8$ (유학준비),  $B_9$ (자아존중감),  $B_{10}$ (자기통제력),  $B_{11}$ (일상적 스트레스),  $B_{12}$ (문화이입 스트레스)

표 2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정도 (N=618)

| 구분 |      | 지각된 차별감   | 문화충격      | 향수         | 비하감       | 두려움       | 전체        |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 학년 | 초등학생 | 2.23(.87) | 2.30(.80) | 2.56(.91)  | 2.00(.82) | 2.36(.97) | 2.28(.67) |
|    | 중고생  | 2.23(.90) | 2.05(.84) | 2.50(1.03) | 2.03(.91) | 2.34(.95) | 2.23(.71) |
| 전체 |      | 2.22(.89) | 2.14(.83) | 2.52(.98)  | 2.02(.87) | 2.35(.96) | 2.24(.70) |

유학생들은 일상적 스트레스 중 학업(M=2.89, SD=.91)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고, 친구관계(M=1.83, SD=.79)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했다.

#### 조기유학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 경향

조기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경험하는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 전체 평균 2.24(SD=.70)점으로 중앙값보다 낮아 보통 수준보다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향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평균 2.52점(SD=.98)이다. 이는 조기유학생들이 타 문화인으로 유학국가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와 그곳에 함께 살던 사람이 그림고,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이 슬프게 느껴져 힘들어함을 의미한다. 반면 조기유학생들이 외국인으로 느끼는 비하적 경험과 자신의 문화 배경에 대한 비하적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평균 2.02점

(SD=.8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같은 척도(Sandhu & Asrabadi, 1994)를 사용한 성인 유학생 대상연구(장혁심, 2007)에서도 향수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유학생들에게는 고국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힘든 부분임을 보여준다. 그 반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응연구(Berry et al., 2006)에서는 차별 경험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문화집단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이해된다.

#### 조기유학생 적응의 경향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으로 부정적 정서, 유학만족감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의 학교적응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기유학생들의 부정적 정서 점수는 평균 2.58점(SD=.89)으로 중앙값보다 작아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조기유학생의 유학에 대

표 3.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적응경향 (N=618)

| 구분         |              | 심리적 적응       |             | 사회문화적 적응   |
|------------|--------------|--------------|-------------|------------|
|            |              | 부정적 정서 M(SD) | 유학만족감 M(SD) | 학교적응 M(SD) |
| 학년         | 초등학생 (N=233) | 2.32(.84)    | 3.73(.98)   | 3.55(.58)  |
|            | 중고생 (N=385)  | 2.72(.89)    | 4.02(.92)   | 3.65(.58)  |
| 전체 (N=618) |              | 2.58(.89)    | 3.91(.95)   | 3.62(.58)  |

한 만족 점수는 평균 3.91(SD=.95) 점으로 현재의 유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학교적응의 점수는 평균 3.62(SD=.58) 점으로 중앙값보다 높아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보였다. 초등학생, 중고생으로 구분하여 적응 경향을 비교한 결과 부정적 정서( $t=-5.503, p<.001$ ), 유학만족정도( $t=-3.775, p<.001$ ), 학교적응( $t=-1.937, p<.05$ ) 등 적응의 모든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 정서는 중고생( $M=2.72, SD=.89$ )이 초등학생( $M=2.32, SD=.84$ )보다 높게 나타나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과 불안의 경향이 높음을 보였다. 유학만족감도 학년이 높아지면서 증가하여 중고생( $M=4.02, SD=.92$ )에서 높았고, 학교적응의 정도도 중고생 집단( $M=3.65, SD=.58$ )에서 더 높았다. 이처럼 조기유학 중인 중고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유학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우울과 불안의 경향 또한 높음을 고려할 때,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두 부분인 부정적 정서와 만족도가 서로 다른 변인들에 의

해 설명되는 부분일 것이라 예측하게 한다.

###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조기유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유학기간, 유인동기, 발인동기, 유학국가, 외국어 능력, 유학 준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관련요인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최종 회귀모형은 표 4와 같다. 초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 유학국가, 자기통제력, 유학준비정도, 발인동기이다. 이 다섯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 모형의  $R^2$  값은 .477로 초등학생 조기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정

표 4.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

|           | B     | $\beta$ | t         | R    | $R^2$ | 수정된 $R^2$ | F         |
|-----------|-------|---------|-----------|------|-------|-----------|-----------|
| 자아존중감     | -.347 | -.350   | -4.756*** |      |       |           |           |
| 유학국가(가변수) | -.428 | -.291   | -4.055*** |      |       |           |           |
| 자기통제력     | -.301 | -.287   | -3.760*** | .691 | .477  | .456      | 21.111*** |
| 유학준비      | .157  | .213    | 2.895**   |      |       |           |           |
| 발인동기      | .148  | .190    | 2.698**   |      |       |           |           |

\*\*  $p<.01$ , \*\*\*  $p<.001$

유학국가 변수(가변수)<sup>2)</sup>는 영어권(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 1, 비영어권(중국·동남아) = 0

2) 조기유학생들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유학 하는 경우와 미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에서 유학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경험 수준에 차이를 보임을 고려하여 회귀분석 시에 유학국가를 영어권(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비영어권(중국·동남아)로 구분하였다.

도에 대해 이 모형이 갖는 설명력은 48%이다 ( $F=21.111$ ,  $df=5, 125$ ,  $p<.001$ ). 이 모형의 VIF는 최대가 1.397로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10보다 매우 작고, Durbin-Watson지수는 1.967로 정상분포를 의미하는 2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초등학교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회귀모형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beta=-0.35$ ,  $t=-4.76$ ,  $p<.001$ ), 유학국가( $\beta=-.29$ ,  $t=-4.06$ ,  $p<.001$ ), 자기통제력( $\beta=-.29$ ,  $t=-3.76$ ,  $p<.001$ ), 유학준비정도( $\beta=.021$ ,  $t=2.90$ ,  $p<.01$ ), 발인동기( $\beta=0.19$ ,  $t=2.70$ ,  $p<.01$ )의 순서로 고려했던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수로 채택된 변수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우선 자아존중감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와 부적 영향력이 성립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일상적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상황에서도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며, 학생들의 스트레스 경험에 완충적 역할을 한다는 결과(임은미·정성석, 2008)를 지지한다. 유학국가의 영향력은 비영어권 국가인 중국과 동남아에서 유학하는 경우에 영어권 국가에 유학하는 학

생들보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함을 보여준다. 충동적 성향과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건디는 절제 능력 등을 의미하는 자기통제력의 정도는 조기유학생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험 수준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유학 준비 정도는 정적 영향력이 성립하여 유학준비를 많이 할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학에 대해 준비하며 생긴 기대가 유학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발인동기 수준도 정적 영향력이 성립하여 발인동기에 의한 유학 결정정도가 강할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기유학 중고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최종 회귀모형은 표 5와 같다. 중고생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성별, 발인동기이다. 이 네 가지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 모형이 중고생 조기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28%이다( $F=33.015$ ,  $df=4, 343$ ,  $p<.001$ ). 이 모형의 VIF는 최대가가 1.122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적고, Durbin-Watson지수는 1.759로 잔차의 독

표 5. 조기유학 중고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

|         | B     | $\beta$ | t         | R    | $R^2$ | 수정된 $R^2$ | F         |
|---------|-------|---------|-----------|------|-------|-----------|-----------|
| 자기통제력   | -.305 | -.337   | -6.935*** |      |       |           |           |
| 자아존중감   | -.279 | -.304   | -6.384*** | .527 | .278  | .270      | 33.015*** |
| 성별(가변수) | -.199 | -.161   | -3.425*** |      |       |           |           |
| 발인동기    | .086  | .106    | 2.279*    |      |       |           |           |

\*  $p<.05$ , \*\*\*  $p<.001$

성별 변수(가변수)는 남자 = 1, 여자 = 0

립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중고생의 경우에는 자기통제력( $\beta=-0.34$ ,  $t=-6.94$ ,  $p<.001$ ), 자아존중감( $\beta=-0.30$ ,  $t=-6.39$ ,  $p<.001$ ), 성별( $\beta=-0.16$ ,  $t=-3.43$ ,  $p<.001$ ), 발인동기( $\beta=0.11$ ,  $t=2.28$ ,  $p<.01$ )의 순서로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높았다. 먼저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인 영향력이 성립하였다. 성별도 일상적 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더 경험했다. 발인동기가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같은 개인의 심리 특성 관련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강하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이는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자극의 스트레스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극 자체가 아닌 환경을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개인 심리 특성의 중요함을 강조한 Lazarus와 Folkman(1984)의 견해와 일치한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나타난 성별의 차이는 청소년들인 중고생의 경우에만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춘기 이후 두드러지는 남성다운과 여성다운 특성들이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반영된 것으로 초등학교 집단과 구분되는 점이다. 반면, 유학국가는 초등학교 집단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의 스트레스의 수준에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같은 개인의 내적 심리 특성이 더 영향력 있는 변인이지만, 초등학교들은 유학 국가라는 외

적환경의 영향력이 큰 어린 학생들이 더 개인 외적 환경의 영향에 민감함을 보여준다. 한국교육에의 불만족이나 부적응에 의한 유학 동기인 발인동기가 두 집단 모두에서 스트레스에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학 과정에서 학생으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는 발인동기의 수준이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조기유학 초등학교생과 중고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 관련요인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부터 투입된 조기유학 초등학교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대한 최종 회귀모형은 표 6과 같다. 초등학교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학국가, 자아존중감, 외국어 능력, 발인동기, 자기통제력이다. 이 다섯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 모형의  $R^2$  값은 .303으로 이 모형이 초등학교생 조기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이입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F=11.676$ ,  $df=5$ , 134,  $p<.001$ ). 모형의 최대 VIF는 1.490, Durbin-Watson 지수는 1.609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조기유학 중인 초등학교생의 경우 유학국가( $\beta=-0.27$ ,  $t=-3.62$ ,  $p<.001$ ), 자아존중감( $\beta=-0.21$ ,  $t=-2.56$ ,  $p<.01$ ), 외국어 능력( $\beta=-0.17$ ,  $t=-2.16$ ,  $p<.05$ ), 발인동기( $\beta=0.17$ ,  $t=2.11$ ,  $p<.05$ ), 자기통제력( $\beta=-0.15$ ,  $t=-1.69$ ,  $p<.05$ )의 순서로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유학국가의 영향력은 유학하는 국가에 따라서 경험하는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를 보임을 의미하며, 중국과 동남아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경험했

표 6.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요인

|           | B     | $\beta$ | t         | R    | R <sup>2</sup> | 수정된 R <sup>2</sup> | F         |
|-----------|-------|---------|-----------|------|----------------|--------------------|-----------|
| 유학국가(가변수) | -.382 | -.265   | -3.624*** |      |                |                    |           |
| 자아존중감     | -.209 | -.213   | -2.555**  |      |                |                    |           |
| 외국어능력     | -.121 | -.172   | -2.157*   | .551 | .303           | .277               | 11.676*** |
| 발인동기      | -.125 | .166    | 2.108*    |      |                |                    |           |
| 자기통제력     | -.146 | -.148   | -1.685*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유학국가 변수(가변수)는 영어권 = 1, 비영어권 = 0

다. 이는 아시아 국가로의 유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리라는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문화이입 스트레스와 부적인 영향력이 성립하였다. 외국어 능력은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보여 외국어를 잘 구사할수록 새로운 문화에서의 대인관계나 상황에서 덜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보여준다. 발인동기는 문화이입 스트레스와 정적 영향력이 성립되어 한국에서의 밀어내는 요인에 의해 유학을 선택하는 성향이 강한 경우에 새로운 문화에서 타문화인으로 경험하는 문화이입 스트레스도 더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자기통제를 잘할수록 문화이입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조기유학 중고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대한 최종 회귀모형은 표 7과 같다.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통제력, 외국어 능력, 발인동기, 자아존중감, 유학기간과 성별이다. 이 여섯 가지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 모형이 중고생 조기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이입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22%이다( $F=15.970$ ,  $df=6, 338$ ,  $p < .001$ ). 이 모형의 최대 VIF는 1.186, Durbin-Watson지수는 1.907이다. 자기통제력( $\beta=-0.23$ ,

표 7. 조기유학 중고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요인

|         | B     | $\beta$ | t         | R    | R <sup>2</sup> | 수정된 R <sup>2</sup> | F         |
|---------|-------|---------|-----------|------|----------------|--------------------|-----------|
| 자기통제력   | -.225 | -.217   | -4.204*** |      |                |                    |           |
| 외국어능력   | -.130 | -.168   | -3.219*** |      |                |                    |           |
| 발인동기    | .140  | .150    | 3.03**    |      |                |                    |           |
| 자아존중감   | -.149 | -.142   | -2.815**  | .470 | .221           | .207               | 15.970*** |
| 유학기간    | -.002 | -.134   | -2.601**  |      |                |                    |           |
| 성별(가변수) | -.146 | -.103   | -2.085*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성별 변수(가변수)는 남자 = 1, 여자 = 0

$t=-4.20$ ,  $p<.001$ ), 외국어능력( $\beta=-0.17$ ,  $t=-3.22$ ,  $p<.001$ ), 발인동기( $\beta=0.15$ ,  $t=3.03$ ,  $p<.01$ ), 자아존중감( $\beta=-0.14$ ,  $t=-2.82$ ,  $p<.01$ ), 유학기간( $\beta=-0.13$ ,  $t=-2.60$ ,  $p<.01$ ), 성별( $\beta=-0.10$ ,  $t=-2.09$ ,  $p<.05$ ) 순서로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변수별로 보면, 먼저 자기통제력이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대해 부적 영향을 보여준다. 외국어능력도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력이 성립하였다. 발인동기는 한국에서 유학을 가도록 밀어내는 요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다. 문화이입 스트레스와 정적 관련이 있음은 발인동기에 의해 유학을 결정한 정도가 강할수록 문화이입 스트레스를 더 경험함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문화이입 스트레스와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유학기간도 부적 관련을 보여 유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 여학생의 경우에 문화이입 스트레스에도 더 민감했다.

이상에서 조기유학생의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집단 모두에서 외국어능력,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발인동기의 변인들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외국어 능력의 영향력은 일상적 스트레스에서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못한 변인이었으나,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부각됨은 타문화 안에서 언어와 의사소통 정도가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문화학습이론은 외국어 능력이 새로운 문화에서의 대인관계와 학업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Bochner, 1986; Kim, 1977, 1991)는 측면에서 문화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강

조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많은 연구(이승중, 1996; 장혁심, 2007; Berry, 1987; Minde, 1985)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같은 심리 특성 관련요인들이 두 측면 스트레스 모두에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는 결과는 같은 환경에서도 그를 해석하고 대처하는 개인의 심리 특성이 조기유학생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발인동기의 영향력은 한국에서 불만족의 경향이 높은 경우 타문화 안에서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학기간은 문화이입 스트레스에서도 초등학생 집단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어린 학생들이 더 개인 외적 환경의 영향에 민감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문화이입 스트레스에서도 청소년들인 중고생의 경우에만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사춘기 이후 성적 정체성을 형성한 이후에 나타나는 차이로 이해된다.

#### 조기유학생의 적응 관련요인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설명하기위해 성별, 연령, 유학기간, 유인동기, 발인동기, 유학국가, 외국어능력, 유학준비,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 등을 도구변인으로, 일상적 스트레스, 문화이입 스트레스를 설명변인으로 설정하여 도구변인들의 영향력이 반영된 설명변인들과 적응과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부정적 정서 관련요인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불안과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와 더불어 유학만족감으로

구분하고,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 일면인 우울과 불안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설명력 분석을 위해서 도구변인의 영향력이 반영된 일상적 스트레스, 문화이입 스트레스와 유학만족감, 학교적응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확인한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초등학생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이

다. 이 모형의  $R^2$  값은 .37로 초등학생 조기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37%이다( $F=16.016$ ,  $df=4, 109$ ,  $p<.001$ ).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에 정적 영향( $\beta=0.59$ ,  $t=2.24$ ,  $p<.05$ )이 확인되었고, 학교적응정도는 부정적 정서에 부적 영향( $\beta=-0.37$ ,  $t=-2.08$ ,  $p<.05$ )을 보였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관련하여, 학업에 대한 부담, 또래친구와 외모, 소유 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이 클수록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경향이 증가됨을 보여,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국

표 8.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 요인

|           | B     | $\beta$ | t       | R    | $R^2$ | 수정된 $R^2$ | F         |
|-----------|-------|---------|---------|------|-------|-----------|-----------|
| 일상적 스트레스  | .707  | .590    | 2.244*  |      |       |           |           |
| 문화이입 스트레스 | .348  | .272    | .558    | .608 | .370  | .347      | 16.016*** |
| 유학 만족감    | .332  | .377    | 1.549   |      |       |           |           |
| 학교적응      | -.559 | -.374   | -2.079* |      |       |           |           |

\*  $p<.05$ , \*\*\*  $p<.001$

표 9. 조기유학 중고생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 요인

|           | B     | $\beta$ | t        | R    | $R^2$ | 수정된 $R^2$ | F         |
|-----------|-------|---------|----------|------|-------|-----------|-----------|
| 일상적 스트레스  | 1.028 | .711    | 4.153*** |      |       |           |           |
| 문화이입 스트레스 | .328  | .261    | .921     | .431 | .186  | .176      | 19.125*** |
| 유학 만족감    | -.238 | -.245   | -.985    |      |       |           |           |
| 학교적응      | .427  | .278    | 1.044    |      |       |           |           |

\*\*\*  $p<.001$

3) 부정적 정서( $A_1$ )에 대한 함수식이다.  $A_1 = H_1(A_2, A_3; B_{11} B_{12})$

설명변수:  $A_2$ (유학만족감),  $A_3$ (학교적응),  $B_{11}$ (일상적 스트레스),  $B_{12}$ (문화이입 스트레스)

도구변수:  $B_1$  (성별),  $B_2$ (연령),  $B_3$ (유학기간),  $B_4$ (유인동기),  $B_5$ (발인동기),

$B_6$ (유학국가),  $B_7$ (외국어능력),  $B_8$ (유학준비),  $B_9$ (자아존중감),  $B_{10}$ (자기통제력)

내 연구결과(이미리, 2006)와 일치한다.

조기유학 중고생의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확인한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 모형이 조기유학 중고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19%이다( $F=19.125$ ,  $df=4$ , 335,  $p<.001$ ). 조기유학 중고생의 부정적 정서에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수준( $\beta=0.71$ ,  $t=4.15$ ,  $p<.001$ )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중고생 모두에게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우울하고 불안한 부정적 정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유학만족감 관련요인

조기유학생의 유학만족감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sup>4)</sup>하였다.

유학만족감을 중심으로 확인해 본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결과는 표 10

과 같다. 이 모형의  $R^2$  값은 .24로 조기유학 초등학생들의 유학만족감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24%이다( $F=8.542$ ,  $df=4$ , 109,  $p<.001$ ).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의 정도가 유학만족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 $\beta=0.54$ ,  $t=2.72$ ,  $p<.01$ )이 확인되었다.

조기유학 중고생의 심리적 적응을 유학만족감을 중심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 모형이 조기유학 중고생들이 경험하는 유학만족감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16%이다( $F=16.169$ ,  $df=4$ , 335,  $p<.001$ ). 조기유학 중고생에서도 그들의 학교적응 정도가 유학만족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 $\beta=0.87$ ,  $t=5.28$ ,  $p<.001$ )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기유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학업,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에 대한 적응하는 정도가 그들의 만족스런 심리상태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조기유학생의 유학만족감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학교적응 정도임을 보여준다.

표 10.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유학만족감에 대한 영향 요인

|           | B     | $\beta$ | t       | R    | $R^2$ | 수정된 $R^2$ | F        |
|-----------|-------|---------|---------|------|-------|-----------|----------|
| 일상적 스트레스  | .023  | .017    | .056    |      |       |           |          |
| 문화이입 스트레스 | -.704 | -.484   | -1.016  |      |       |           |          |
| 부정적 정서    | .415  | .365    | 1.491   | .489 | .239  | .211      | 8.542*** |
| 학교적응      | .917  | .540    | 2.722** |      |       |           |          |

\*\*  $p<.01$ , \*\*\*  $p<.001$

4) 유학만족감( $A_2$ )에 대한 함수식이다.  $A_2 = H2(A_1, A_3; B_{11} B_{12})$

설명변수:  $A_1$ (부정적 정서),  $A_3$ (학교적응)

$B_{11}$ (일상적 스트레스),  $B_{12}$ (문화이입 스트레스)

도구변수:  $B_1$  (성별),  $B_2$ (연령),  $B_3$ (유학기간),  $B_4$ (유인동기),  $B_5$ (발인동기),

$B_6$ (유학국가),  $B_7$ (외국어능력),  $B_8$ (유학준비),  $B_9$ (자아존중감),  $B_{10}$ (자기통제력)

표 11. 조기유학 중고생의 유학만족감에 대한 영향 요인

|           | B     | $\beta$ | t        | R    | R <sup>2</sup> | 수정된 R <sup>2</sup> | F         |
|-----------|-------|---------|----------|------|----------------|--------------------|-----------|
| 일상적 스트레스  | -.059 | -.040   | -.169    |      |                |                    |           |
| 문화이입 스트레스 | .518  | .401    | 1.422    |      |                |                    |           |
| 부정적 정서    | -.166 | -.162   | -.765    | .402 | .162           | .152               | 16.169*** |
| 학교적응      | 1.378 | .873    | 5.278*** |      |                |                    |           |

\*\*\*  $p < .001$ 

이는 해외에서 성공적 학업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조기유학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처럼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부정적 정서와 유학만족감,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우울과 불안이라는 부정적 정서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학만족감은 학교적응에 의해서 설명됨을 보여준다. 이는 부정적 정서나 만족감이라는 하나의 변인을 심리적 적응으로 고려한 연구나, 이 두 부분을 합산하여 심리적 적응이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볼 경우에는 드러나기 힘든 부분으로, 심리적 적응의 두 측면이 서로 다른 변인으로 설명되는 적응 양상임을 보여준다.

####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분석<sup>5)</sup>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이 모형이 조기유학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24%이다( $F=8.606$ ,  $df=4, 108$ ,  $p < .001$ ).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는 부정적 정서나 타났

다. 이는 우울과 불안의 경향이 높을 경우 학업성적과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뜻한다. 학교적응에 대해 우울과 불안이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심리적 부적응이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Searle & Ward, 1990)와 일치한다. 또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해 유학만족감( $\beta=0.72$ ,  $t=2.24$ ,  $p < .05$ )의 정적 영향이 확인되어, 학생이 유학생활 전반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앞서 초등학생의 유학만족정도에 학교적응이 정적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학교적응과 유학만족감 사이에는 상호 정적 관련을 보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성공적 학교적응이 유학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또 높아진 유학만족감은 학교적응의 새로운 동기가 되는 선순환 관계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될 수 있음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조기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이 모형이 갖는 설명력

5) 학교적응( $A_3$ )에 대한 함수식이다.  $A_3 = H_3(A_1, A_2; B_{11}, B_{12})$

설명변수:  $A_1$ (부정적 정서),  $A_2$ (유학 만족감),  $B_{11}$ (일상적 스트레스),  $B_{12}$ (문화이입 스트레스)

도구변수:  $B_1$ (성별),  $B_2$ (연령),  $B_3$ (유학기간),  $B_4$ (유인동기),  $B_5$ (발인동기),  $B_6$ (유학국가),  $B_7$ (외국어능력),  $B_8$ (유학준비),  $B_9$ (자아존중감),  $B_{10}$ (자기통제력)

표 12.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 요인

|           | B     | $\beta$ | t       | R    | R <sup>2</sup> | 수정된 R <sup>2</sup> | F        |
|-----------|-------|---------|---------|------|----------------|--------------------|----------|
| 일상적 스트레스  | .643  | .800    | 1.869   |      |                |                    |          |
| 문화이입 스트레스 | -.286 | -.338   | -.551   | .492 | .242           | .214               | 8.606*** |
| 부정적 정서    | -.702 | -1.047  | -2.385* |      |                |                    |          |
| 유학만족감     | .428  | .716    | 2.237*  |      |                |                    |          |

\*  $p < .05$ , \*\*\*  $p < .001$ 

표 13. 조기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 요인

|           | B     | $\beta$ | t        | R    | R <sup>2</sup> | 수정된 R <sup>2</sup> | F         |
|-----------|-------|---------|----------|------|----------------|--------------------|-----------|
| 일상적 스트레스  | .067  | .071    | .290     |      |                |                    |           |
| 문화이입 스트레스 | -.594 | -.725   | -3.175** | .489 | .240           | .231               | 26.388*** |
| 부정적 정서    | .104  | .160    | .729     |      |                |                    |           |
| 유학만족감     | .481  | .759    | 4.740*** |      |                |                    |           |

\*\*  $p < .01$ , \*\*\*  $p < .001$ 

은 24%이다( $F=26.388$ ,  $df=4, 335$ ,  $p<.001$ ). 유학만족감( $\beta=0.76$ ,  $t=4.74$ ,  $p<.001$ )은 조기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대해 정적 영향 관계가 성립하였다. 또한 문화이입 스트레스( $\beta=-0.73$ ,  $t=-3.18$ ,  $p<.01$ )는 조기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조기유학 중고생들이 높은 유학만족감을 지닐수록 또 경험하는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정도가 약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이입 스트레스가 학업성취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Natasha, 2005)결과와 일치한다.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음은 유학국가에서 문화적 이질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스스로가 다른 문화에서 유학 온

타문화인이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중고생들의 경우는 타문화에서 유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인식이 그들의 학교적응에 더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Sam & Berry, 2006; Ward Bochner & Furnham, 2001)의 결과를 지지하며, 한국에서의 문화적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고유문화 배경에 익숙하기에 타문화에서의 차이에 민감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적응에서 보이는 공통적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 등 심리 특성 변인들이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둘째, 한국의 학교 환경이 싫어서, 학교공부가 어렵

고 성적이 낮아서 등의 한국에서 밀어내는 발인동기가 스트레스와는 정적 관련을 적응과는 부정 관련을 보여 발인동기의 경향이 높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와 적응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부정적 정서와 만족감이라는 심리적 적응의 두 측면 중 부정적 정서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의해 설명되지만 유학만족감은 일상적 또는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학교적응에 의해 설명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 정서의 측면과 만족감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심리적 적응의 서로 다른 측면으로 이해된다.

초등학생의 적응과 중고생의 적응에서 보이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의 사실들이 구체화된다. 스트레스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되었던 변인 중 초등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온 변인은 유학국가 변인이며, 중고생의 경우에는 성별 변인이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유학국가에 따라 스트레스와 적응의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하므로, 아동기의 어린 학생들이 유학 적응의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 사춘기가 지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구체화되는 청소년기 중고생 집단에서만 성별 변인의 영향력이 확인된 것은 아동기 초등학생 집단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없음을 고려할 때 두 집단의 발달적 차이를 보여준다. 두 모형 모두에서 외국어 능력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타 문화인으로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되는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이입 스트레스 수준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초등학생집단에

서는 유의하지 못하지만, 중고생의 학교적응과 유학 만족감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외국어 능력의 수준은 초등학생보다 중고생의 유학 적응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조기유학생의 적응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화적응 이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문화 안에서 학생으로 적응해야 하는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와 적응 요인 및 그 영향력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 분석에 의하면 이 연구에 표집된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발달의 탄력성은 새로운 문화 충격을 잘 흡수하고 스스로 극복하는 듯하다. 이러한 발달의 탄력성은 성인기와 달리 문화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총체적으로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지 않은 한편 하위 영역에 따라서 드러난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는 조기유학생이 지니는 문화집단으로의 특성을 반영한다. 우선 조기유학생들이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학업에서 가장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고 친구관계와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사실은 학생이라는 지위에서 학업이 그들 생활의 가장 큰 관심 영역임을 말해준다. 또한 문화

이입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조국을 떠나 이국에서 향수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였는데, 이는 영구체류를 계획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연구(Berry et al., 2006)에서는 차별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보고와 비교된다. 유학생과 이민자라는 두 집단은 타 문화 이입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유학생은 일시적 체류자(Bochner, 1986)로서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을 동반하여 새로운 문화 안에서 영구체류를 계획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사회로부터의 차별경험이 더 무겁게 체감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이나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조기 유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하위 영역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향수 스트레스 영역에서 높은 수준이 나타남은 이들이 학업 수행 중인 학생이면서 타 문화인이라는 지위 특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둘째, 조기유학생의 스트레스에 영향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 분석을 토대로 다음의 사실이 알려졌다. 자아존중감은 조기유학 중인 초등학생과 중고생 집단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조기유학 아동,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 청소년들보다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 마찬가지로 자기통제력도 조기유학 중인 초등학생과 중고생 집단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자기에 대해 자신감과 긍정적

관점을 지닌다는 인지적 측면과 더불어 자기의 행동을 목표를 위해 절제하고 충동을 참을 수 있는 행동적 측면이 무엇보다 스트레스와 적응을 예견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 두 능력이 스트레스의 완충적 조절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또 선행연구를 기초로 고려된 다른 영향 요인들보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같이 개인이 지닌 특성이 스트레스와 적응에 가장 관련을 보임은 비슷한 유학 환경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개인의 심리 특성에 따라 적응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학습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측면임을 고려할 때 교육적 노력을 통해 조기유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또한 이렇듯 확인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변인의 중요성은 조기유학생의 문화적응 연구 계획시의 예측이 적절했음을 보여준다. Berry의 문화적응 전략은 이주한 주류 사회 문화와 이주하기 전 원민족문화에 대한 문화적응자의 선호와 그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기본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체성의 갈등이 심하지 않은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조망함에 있어서는 문화적응 전략보다는 그 기저에 작용하는 개인의 심리 특성 변인들이 더 설명력이 있음을 확인하여준다.

Sirowy와 Inkeles(1984)는 유학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유인동기와 발인 동기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유학 동기 중 한국교육의 밀어내는 요인에 의한 발인 동기는 그 경향이 높을 경우에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와 적응의 어려움을 예측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유인동기 경향이 발인

동기의 경향보다 높아 유학결정 과정에는 외국어를 더 잘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서와 같은 유인동기에 기인한 도약형 유학의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고 양호한 적응경향을 보인 이 연구에서는 유인동기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유학결정과정에서 유인동기로 인해 동기화되는 경향은 보이지만, 스트레스와 적응의 측면에는 발인동기의 정도가 영향력을 미침을 보인다. 이는 유학을 결정할 때 한국교육에서 불만이나 어려움에서 비롯된 발인동기의 경향이 높으면, 유학을 가서도 더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고 유학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한국에서 적응이 어려워 외국으로 유학을 고려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적응도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무분별한 도피적 조기유학이 한국 내 교육 부적응에 대한 대안적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외에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외국어 능력의 설명력이 밝혀졌다. 외국어 능력은 조기유학 초등학생과 중고생 집단 각각에서 문화이입 스트레스 수준에 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어 학습을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와 적응능력의 향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문화학습이론의 견해를 지지한다. 또 이는 교육적 노력을 통한 적응향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유학을 고려할 경우 외국어 준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우울과

불안이라는 부정적 정서와 유학만족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고려할 때 부정적 정서 수준은 그들이 경험한 일상적 스트레스의 수준과 관련된다. 이와 달리 조기유학생의 유학만족감에는 학교적응 정도가 가장 설명력을 지니 그들의 만족스런 심리상태를 형성하는데 학교적응이 중요한 부분임을 의미한다. 조기유학이 학업을 목적으로 한 타문화 이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적응이 유학만족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심리적 적응을 우울과 불안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부분이다.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측면인 만족감과 부정적 측면인 불안과 우울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됨을 알려준다.

조기유학생의 타 문화인으로 경험하는 문화이입 스트레스의 수준이 학교적응을 설명한다는 사실은 문화이입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요인들인 성별,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발인동기, 외국어 능력, 유학기간 등도 조기유학생의 학교적응을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학만족감과 학교적응 사이의 상호 관련성은 학업을 목적으로 한 조기유학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학교적응이 전반적인 유학 생활에 만족하게 하며, 또 만족스런 심리 상태가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조기유학생의 적응은 발달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우선 유학국가 변인은 초등학생의 집단에서만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 각각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유학국가에 따라 조기유학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를 보인다. 유학국가라는 특성이 유학 허가조건, 사

회경제적 여건 같은 유학 상황과 관련된 개인 외적 환경의 차이를 수반함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들이 중고생들보다 더 개인 외적 환경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조기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와 유학 대상 국가의 선택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위주에서 최근에는 그 이외의 국가로 다양해짐을 고려할 때 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동남아는 한국과 같은 아시아계 사회로 서구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보다 문화적 이질감을 덜 느끼리라 기대했으나(왕성성, 2005), 중국과 동남아에서 공부하는 조기유학생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는 우리나라와의 언어적, 사회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우선 언어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동남아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지만, 중국의 경우 중국어의 학습경험이 영어보다 적은 것이 한 원인으로 예측된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 영어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진행되어 유학 전 조기유학생들에게는 중국어보다 영어의 학습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연구대상 조기유학생들은 사회경제적으로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가정환경을 지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더 많은 사회경제적 차이를 경험했을 수 있다. 중국은 유교 문화권으로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사회 풍토를 지녀(김경근·윤혜준, 2005) 한국에서 유학의 발인동기로 고려되었던 부분들이 중국에서 오히려 더 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부담을 더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생활양식이나 교육제도가 서구화 되어지는 성향을 지니므로 조기유학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동양 문화권으로 여겨지는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더 차이를 경험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게 한다.

성별은 청소년들인 중고생의 경우에만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춘기 이후 생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가 반영된 것으로, 여러 하위 영역에서 여학생의 수준이 남학생의 것보다 높아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이는 많은 연구들이 문화적응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더 경험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유학 국가와 성별이라는 두 변인이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임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이 유학 적응의 측면에 표현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조기유학생의 적응에서 발달적 차이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중고생의 경우는 문화이입 스트레스가 적응을 설명하는 측면이다. 스트레스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므로 현재 관심 있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때, 아동기에는 부모관계, 학업, 또래관계, 외모, 소유와 관련된 일상적 사건들에 대해 주로 어려움을 느끼나 중고생 청소년들은 그 어려움에의 인식 범위가 가정과 학교를 넘어서서 문화적 측면 차이로 비롯되는 부분까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적응모형에서 적응에 가장 설명력 있는 두 스트레스의 측면은 아동기의 학생들에 비해 청소년기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의 폭이 확대됨을 보여준다고 이해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문화적응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영향요인과 그

관계 분석을 토대로 설정한 조기유학생의 적응연구 설계가 새로운 문화에서의 학생이라는 조기유학생의 특성과 발달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할 수 있다.

## 의의 및 제언

이 연구의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밝힌다.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조기유학생의 문화집단으로의 특성을 문화적응 이론에 입각하여 도출하고 그를 반영한 적응연구를 시도하여 조기유학생이 적응과 그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의 틀을 제시하고 그 적합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둘째, 조기유학생이 유학 결정하게 되는 유학동기를 평가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적응에 대한 유학 동기의 영향력을 확인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셋째, 이 연구는 조기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고찰하기 위한 유학만족감 정도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의 두 측면이 서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이론적 연구 모형을 토대로 아동기인 초등학생과 청소년기인 중고생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기존 연구들이 문화적응과정에서 연령 차이의 유무를 확인한 정도인 것에 반해, 이 연구는 조기유학생의 적응에 드러나는 발달적 차이를 구체화함으로써 문화적응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조기유학이 유학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를 구분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실용적 측면에서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과 부모에게 조기유학 적응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유학국 학교 교사들의 조기유학생의 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유학국가에서 조기유학생 적응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 제공시 유용하리라 기대된다.

이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연구대상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적응이 양호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비교적 적응을 잘하는 대상이 표집 되었을 가능성과 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연구대상 표집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 또한 횡단적 조사 실시하여 유학기간, 연령 같은 시간 관련변인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추론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조기유학생의 적응에 대한 후속 중단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하나는 이 연구 결과에서 성별요인은 사춘기를 지난 중고생 집단에서만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이입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력을 지니는 요인이었다. 조기유학 중고생 대상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적응의 차이와 그 설명변인에 대한 후속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 외에 초등학생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학국가의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은 유학국가의 특성과 한국과의 문화적 거리감에 초점을 두어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적응을 고찰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조기유학 유형별 분석을 위한 연구. 정책연구개발사업, 2007-공모-50.
- 권미경 · 이순형 (2007). 조기해외유학 중고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변인 탐색. 인간발달연구, 14(3), 43-63.
- 김경근 · 윤혜준 (2005). 교육적 동기에 의한 '탈한국'의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특성. 교육사회학연구, 15(3), 29-50.
- 김영희 · 최명선 · 이지향 (2006). 뉴질랜드 거주 조기유학생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청소년학 연구, 13(1), 55-84.
- 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류광식 (2002). 초등학생의 장존중감과 가정생활 만족도 및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철 (2007). 재한 조선족 동포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 (2006). 미국 조기유학생들의 현지 생활 적응과 상담활동. 부산대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주아 (2008).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문화적응,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병철 (1996). 조기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96년 후기 사회학 대회.
- 왕성성 (2005). 한국인 중국 조기 유학생의 유학 선택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리 (2006).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의 상호작용효과. 아동학회지, 27(5), 67-78.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5). 호주 한인 학생의 적응: 교민과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28(2), 63-95.
- 임은미 · 정성석 (2008).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정서의 관계에 대한 자아개념과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제5회 한국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3-19.
- 장혁심 (2007).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수 (2009). 조기유학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01).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2001년 KEDI 교육정책포럼.
- 한국교육개발원 (2006). 인간발달학적 관점에서 본 조기유학의 득과 실. 수탁연구 CR2006-38.
- 한준상 · 기영화 · 강양원 · 박현숙 · 샤론 메리엄 (2002). 조기유학생 적응 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 방향. 청소년학연구, 9(1), 199-220.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 International Review*, 46, 5-68.
- Berry, J. W. & Annis R. C. (1974). Acculturative str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382-406.
- Berry, J. W., Kim, Minde, & Mok,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2-511.
- Bochner, S. (1986). Coping with unfamiliar cultures: Adjustment or culture learning?. *Austrian Journal of Psychology*, 38, 347- 358.
- Chataway, C. & Berry, J. W. (1989). Acculturation experiences, appraisal, coping and adaption: A comparison of Hong Kong Chinese, French and English student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 295-309.
- Dona, C. & Berry, J. W. (1994). Acculturation attitudes and acculturative stress of Central American refuge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9, 57-70.
-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 London: Methuen.
- Gudykunst, W. B. & Hammer, M. R. (1988). Strangers and hosts: An uncertainty reduction based theory of intercultural adaptation. In Y. Y. Kim & W. B. Gudykunst (eds.),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es* (pp. 106-139). Newbury Park, CA: Sage.
- Kim, Y. Y. (1977). Communication patterns of foreign immigrants in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1), 66-77.
- Kim, Y. Y.(1991).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 systems-theoretic view. In S. Ting-Toomey & F. Korzeny (eds.), *Cross-cultur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p.259-275). Newbury Park, CA: Sage.
- Lazarus, A.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u, L. (1990). Adaptation to British universities: Homesickness and mental health of Chinese student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3, 225-232.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Sam, D. L. & Berry, J. W. (1995). Acculturative stress and young immigrants in Norwa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6, 10-24.
- Sam, D. L. & Berry, J. W. (2006). Introduction to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 (eds.),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pp.1-7).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 D. L. & Eide, R. (1991). Survey of mental health of foreign stud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2, 22-30.
- Sam, D. L. & Oppedal, B. (2002). Acculturation as a developmental pathway. In W. J. Lonner, D. L. Dinnel et al. (ed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 Sandhu, D. S., & Asraba,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on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49-464.
- Sirowy, L. & Inkeles, A. (1984). University-level student exchanges: The U. S. role in global perspective. In Barber, E. G.(Ed.), *Foreign Student Flows* (pp.29-85). NY: Institute of Inter- national Education.
- Tajfel, H. & Turner, J.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Aus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7-24). Chicago: Nelson -Hall
-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Hove, England: Routledge. Publishers.
- 1 차원고접수 : 2009. 12. 31.  
수정원고접수 : 2010. 02. 15.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4.

## The Early Study Abroad (ESA) Experiences of South Korean Students in Different Age Groups: their stresses and adjust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acculturation theory

Kwon, Me-Kyung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g Eui Women's College

Yi, Soon-Hyung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n students who undertook Early Study Abroad (ESA) in a different culture. This study focused on two aspects of their stress levels; their daily life stress which they feel as students and the acculturative stress which they feel as people from a different culture. This was done in order to examine ESA's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ecting factors, the stresses, and their adjustment in the different age groups. The participants were 618 ESA coming from five different countries.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multiple regression and the 2 stage least squares metho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students did not experience much daily life stress nor acculturative stress. However, the two aspects of stress play an important part in describing their adjustment. Second, the daily life stress and the acculturative stress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self respect, the level of self control,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push factors in all ages. Third, the influential variable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were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and the satisfaction with life as a student abroad. Fourth, the influence of the country in which the student studies makes a difference only in the stress level of the elementary group. The influence of sexual differences was only revealed in the stress levels of the adolescent group. Lastly, the level of daily life stres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the adjustment of the elementary group.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the adjustment of the adolescent group.

*Key words : South Korean Early Study Abroad, acculturation, daily life stress, acculturative stress, psychologica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